

클레이교회 CLAYJARS

1314 N Angelina Dr. Placentia CA 92870

www.clayjars.org

황성만 목사 Rev. Sungman Hwang

November 22, 2026 **제24권 47호**

2026년 교회 표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요13:34~35, 요일4:11)

Christians who Sharing Love

: Embracing All, Serving All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I am giving you a new command. You must love each 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If you love each 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요한복음(John) 13:34~35]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om the beginning you were told that we must love each other.

[요한일서(John 1) 3:11]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2 Corinthians 4:7)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추수감사주일 / 왕이신그리스도주일 | **November 22, 2026**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45:1-3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은혜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황성만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윤치선 집사** 시편(Psalm) 95:1-7a **교독-다함께** 에베소서(Ephesians) 1:15-23
복음서봉독 The Gospel		마태복음(Matthew) 25:31-46**, 설교자**
오늘의 말씀 Sermon		"우리를 세시는 분께 드리는 감사" Thanksgiving to the One Who Counts Us - **황성만 목사**
봉헌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All to Jesus I Surrender
성찬 The Lord's Supper		(세례 교인만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단찬양 Responsive Song	*	감사하는 성도여 (306)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정해철 집사

| 다음주 본문 | 정용순 집사 이사야(Isaiah) 64:1~9
고린도전서(Corinthians) 1:3~9
마가복음(Mark) 13:24~37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시 1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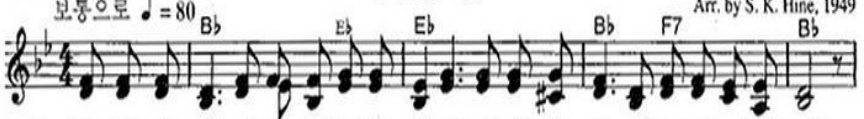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

C. G. Boverg, c. 1885
Eng. Trans. and St. 4 by S. K. Hine, 1949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시 95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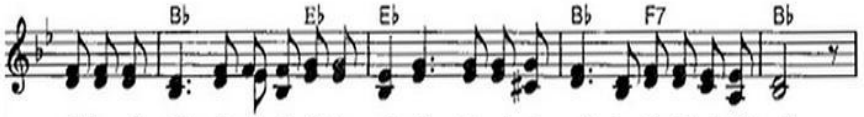
O STORE GUD: 11.10.11.10.REF.
Swedish Folk Melody, 1800
Arr. by S. K. Hine, 1949

보통으로 ♩ = 80



1. 주 하나 님지으 신모든 세계내마 음 속에그리어볼 때
2. 숲 속이 나험한 산골짝 에서지저 귀 는저새소리들 과
3. 주 하나 님독생 자아낌 없이우리 를 위 해보내주셨 네
4. 내 주예 수세상 에다시 올때저천 국 으로날인도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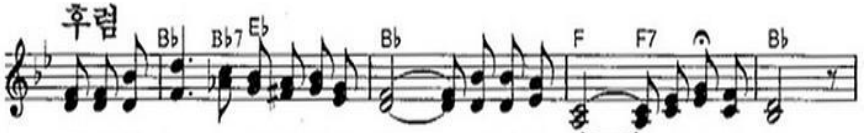
1.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2.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3.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
4.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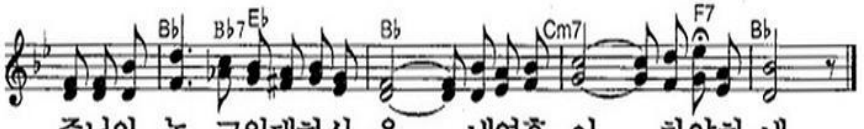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능우주에찼 네
고요하 게 흐르는시냇 물은 주님의 솜 씨노래하도 다
십자가 에 피흘려죽으 신주 내모든 죄 를구속하셨 네
나겸손 히 엎드려경배 하며 영원히 주 를찬양하리 라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When I look down from loft-l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후렴



주님의 높 고위대하심 을 내영혼 이 찬양하 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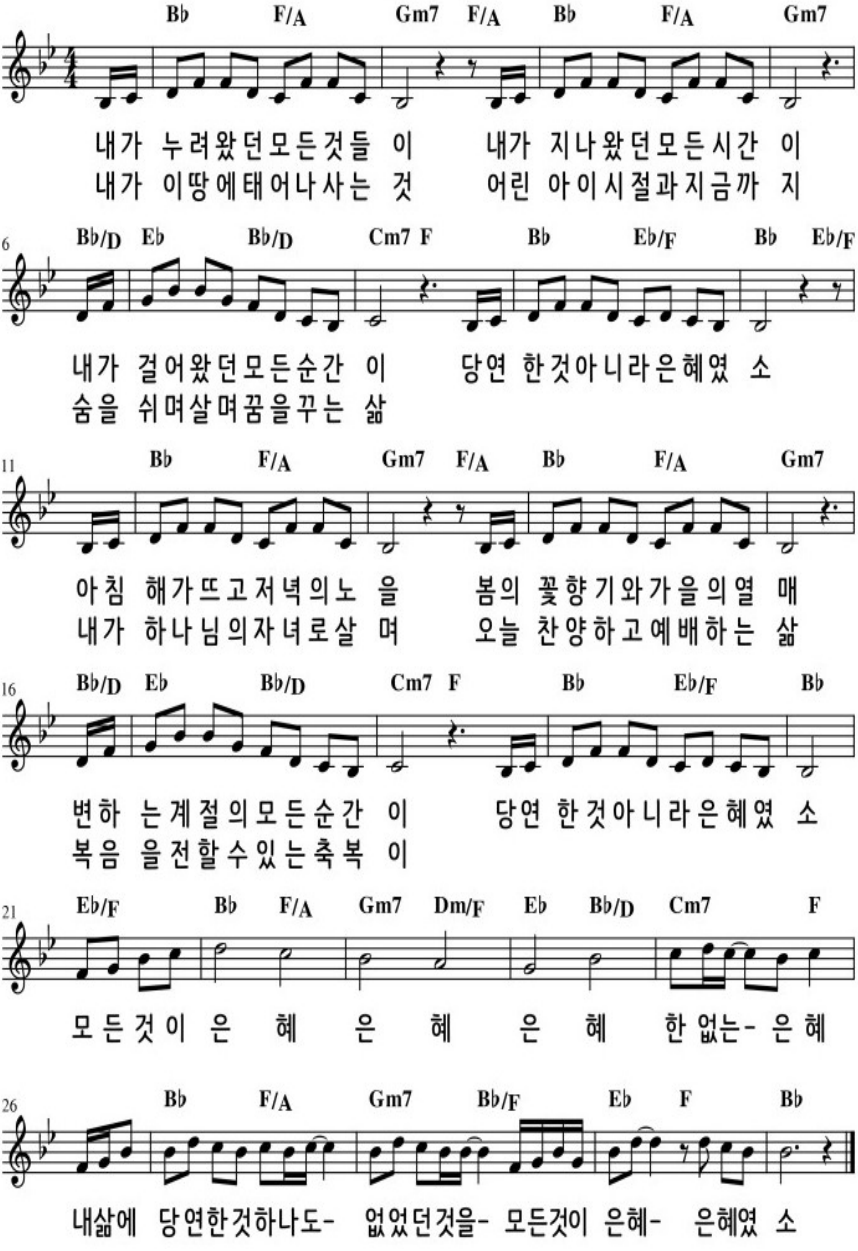


주님의 높 고위대하심 을 내영혼 이 찬양하 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찬양과 경배

은혜

손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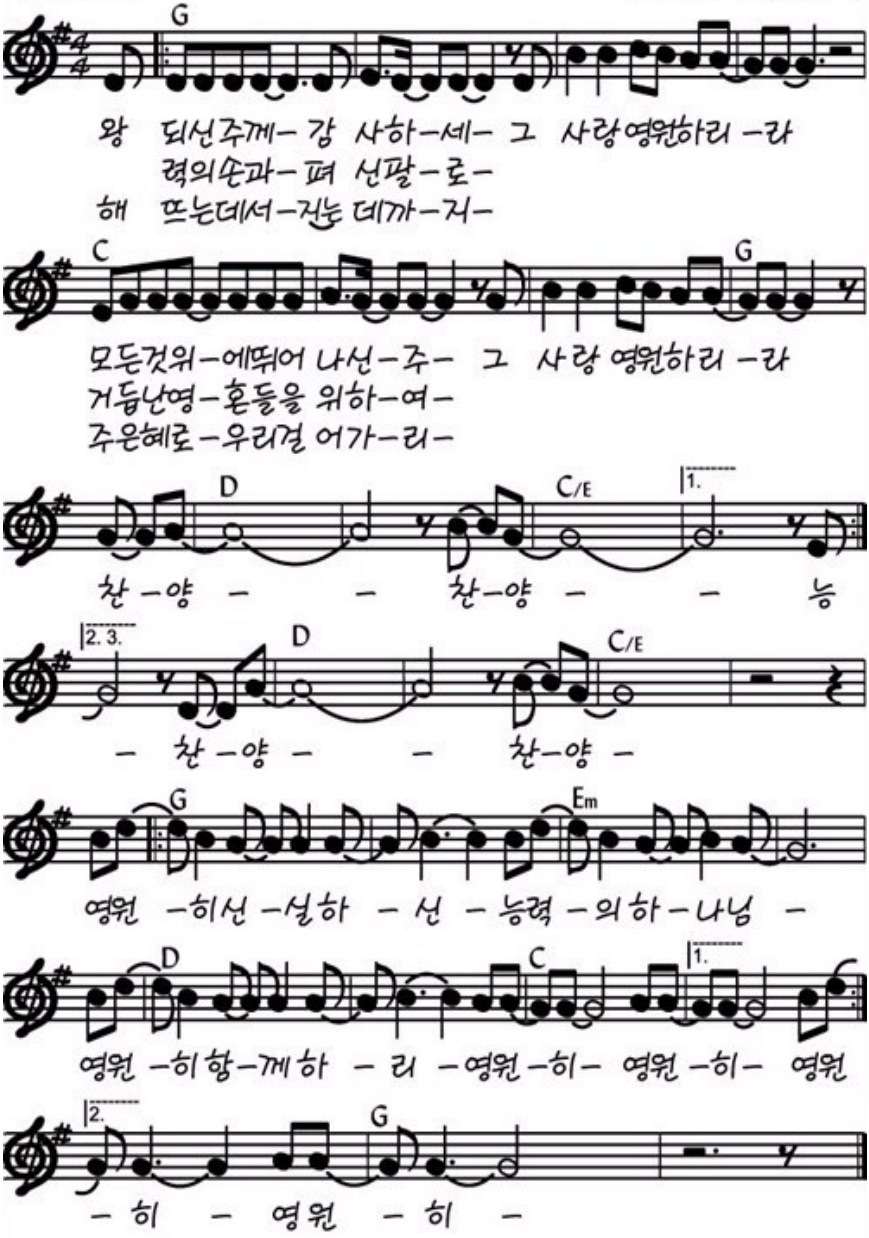

B♭ F/A Gm7 F/A B♭ F/A Gm7
내가 누려왔던모든것들 이 내가 지나왔던모든시간 이
내가 이땅에태어나사는 것 어린 아이시절과지금까 지
6 B♭/D E♭ B♭/D Cm7 F B♭ E♭/F B♭ E♭/F
내가 걸어왔던모든순간 이 당연 한것아니라은혜였 소
숨을 쉬며살며꿈을꾸는 삶
11 B♭ F/A Gm7 F/A B♭ F/A Gm7
아침 해가뜨고저녁의노 을 봄의 꽃향기와가을의열 매
내가 하나님의자녀로살 며 오늘 찬양하고예배하는 삶
16 B♭/D E♭ B♭/D Cm7 F B♭ E♭/F B♭
변하 는계절의모든순간 이 당연 한것아니라은혜였 소
복음 을전할수있는축복 이
21 E♭/F B♭ F/A Gm7 Dm/F E♭ B♭/D Cm7 F
모든것이 은 혜 은 혜 은 혜 한없는- 은혜
26 B♭ F/A Gm7 B♭/F E♭ F B♭
내삶에 당연한것하나도- 없었던것을- 모든것이 은혜- 은혜였 소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Chris Tomlin

Forever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역



Copyright (c) 2000 Six Steps Music/EMICMP. Adm. By CopyCare Korea/Pasil Int.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 Approved by CopyCare Korea/Pasil Int.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시편(Psalm) 95:1-7a, 새번역, ESV]

1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2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3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4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6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1] Oh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2] Let u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him with songs of praise!
[3] For the LORD is a great God,
and a great King above all gods.
[4] In his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height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5] The sea is his, for he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

[6] Oh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7]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에베소서(Ephesians) 1:15-23, 새번역, ESV]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15 For this reason, because I have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toward all the saints, 16 I do not cease to give
thanks for you, remembering you in my prayers, 17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19 and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20 that he work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21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and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22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23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마태복음(Matthew) 25:31-46, 새번역, ESV]

31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1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43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다.'

44 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45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31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32 Before him will be gathered all the nations, and he will separat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33 And he will place the sheep on his right, but the goats on the left. 34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35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36 I was naked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visited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me.’ 37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saying,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drink? 38 And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welcome you, or naked and clothe you? 39 And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visit you?’ 40 And the King will answer them,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41 “Then he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Depart from me, you cursed, into the eternal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42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 drink, 43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welcome me, naked and you did not clothe me,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visit me.’ 44 Then they also will answer, saying,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aked or sick or in prison, and did not minister to you?’ 45 Then he will answer them, saying,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not do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not do it to me.’ 46 And these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이번주 작품]



만종 (L'Angélus)

장 프랑수아 밀레 (Jean-François Millet)

1857-1859 년, 캔버스에 유채, 파리 오르세 미술관

해 질 무렵, 감자밭 한가운데서 두 농부가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지평선 위로 마을 교회의 종탑이 보이고, 그곳에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자는 모자를 벗어 두 손에 쥐었고, 여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쇠스랑은 땅에 꽂힌 채 서 있고, 수레도 멈추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처음 제목은「감자 수확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는 초라할 만큼 작습니다. 그들은 그 바구니를 세고 있지 않습니다. 추수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수확물을 헤아리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밀레는 어린 시절 들에서 일하다 종소리가 울리면 늘 일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던 할머니를 기억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시 95:7)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의 목록을 세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세시고 손수 이끄시는 분의 음성 앞에 멈추어 서는 일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곳간이 넉넉한 해에도, 바구니가 작은 해에도 그치지 않는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듣게 됩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Special:Redirect/page/2011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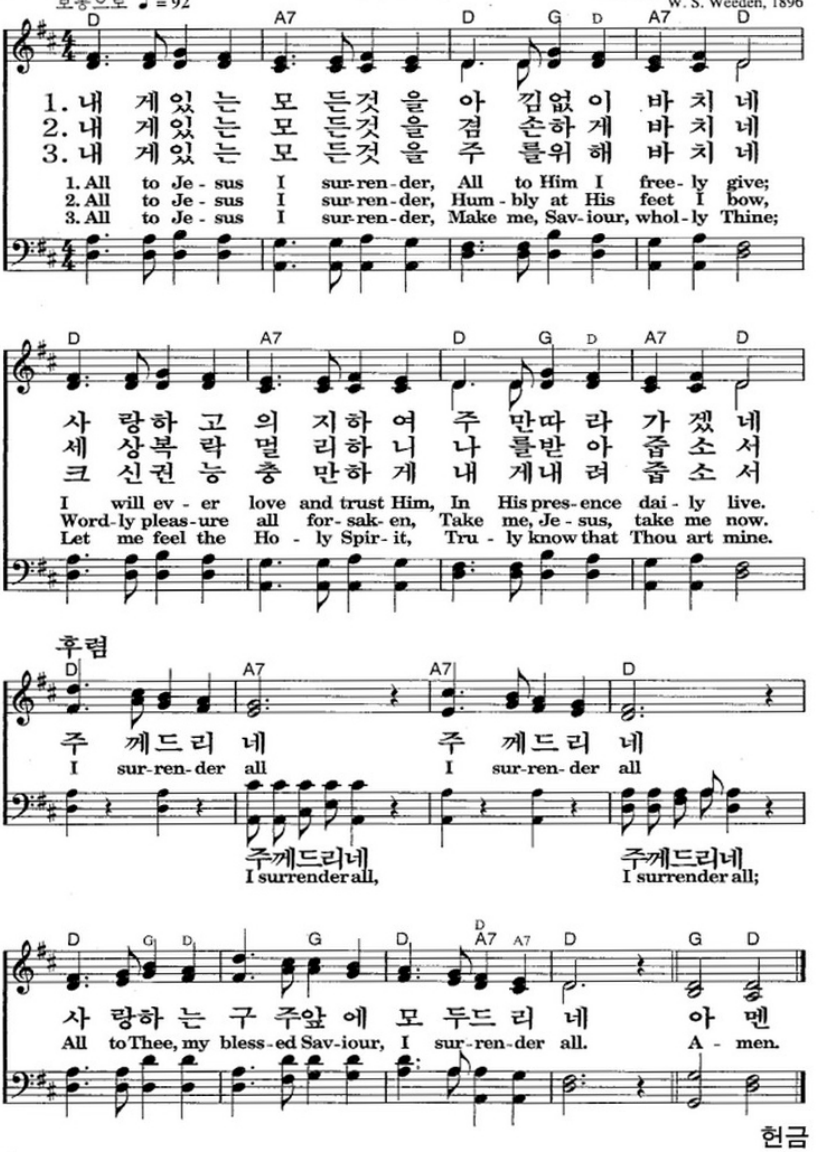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71

All to Jesus I Surrender

J. W. Van De Venter, 1896
보통으로 ♩ = 92

(눅 21 : 4)

SURRENDER: 8.7.8.7.REF.
W. S. Weeden, 1896



헌금

306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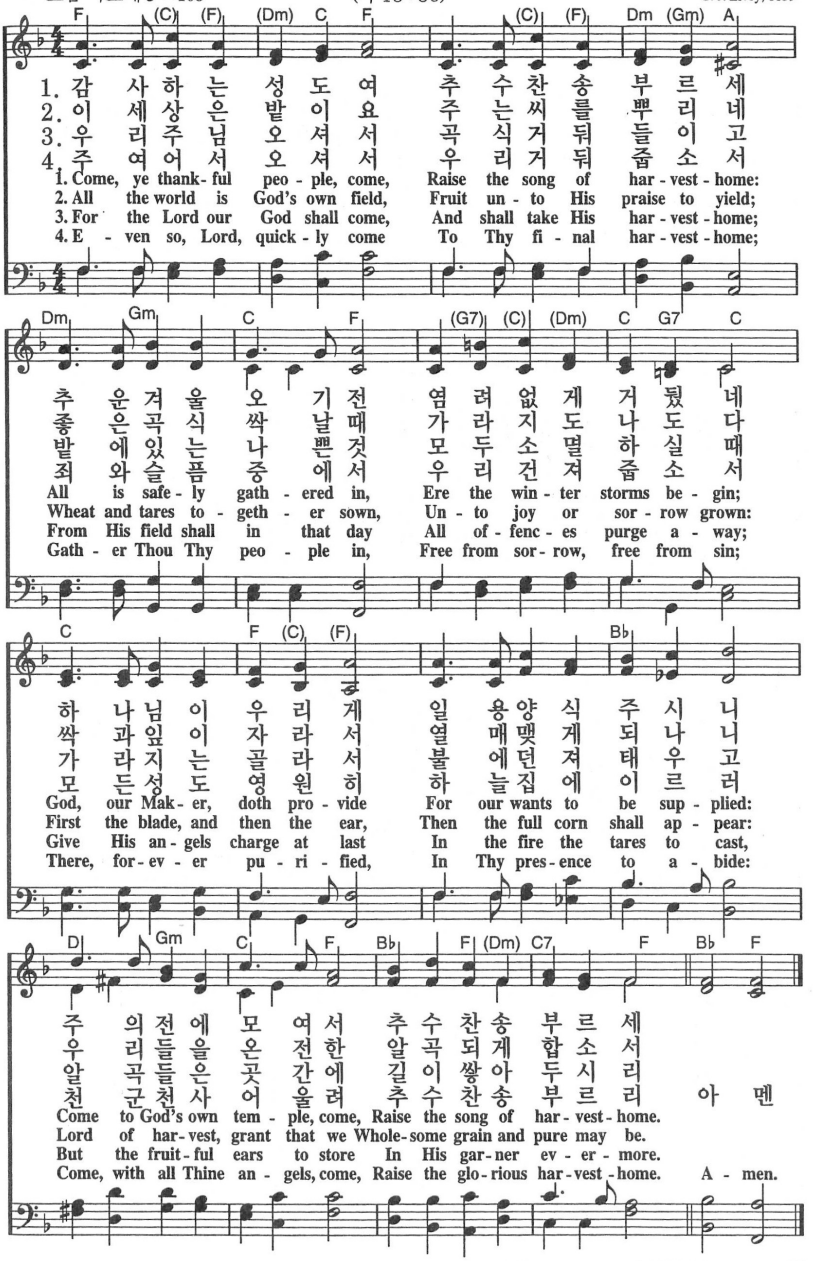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마 13 : 30)

H. Alford, 1844

조금 빠르게 ♩ = 108

ST. GEORGE'S WINDSOR: 7.7.7.7.D.
G. J. Elvey, 1859



[소그룹 설교 나눔 질문]

1. 그 손 안의 세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시 95:7) 추수의 노래인 시편 95 편은 곳간의 목록을 한 줄도 세지 않고, 땅의 깊은 곳과 산의 꼭대기를 쥐신 그 손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세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손에 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올해 감사 제목을 떠올릴 때, 쉽게 적히던 항목과 펜이 멈추었던 자리는 각각 어디였습니까? 목록이 비어 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세고 계시던 손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마 25:37)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대했고, 무언가에 이르는 통로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일이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올지 헤아리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세지 않은 채 그저 그 사람 곁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때 나를 거기까지 이끈 것은 무엇이었다고 느끼십니까?

3. 염소의 장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마 25:44) 이 항변 뒤에는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섬겼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들이 섬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섬길 만한 대상을 골라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받은 것을 세던 손이 어느새 사람의 값도 매기고 있습니다.

최근 내 마음속 장부에서 '시간을 들일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용히 나뉜 적이 있습니까? 그 장부가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4. 먼저 영접받은 나그네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 25:35) 첫 추수감사의 식탁은 곳간이 넘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절반을 땅에 묻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기대어 겨우 살아남은 나그네들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접받은 나그네였기에, 다른 나그네를 내려다볼 높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내가 낯선 자리에 처음 섰을 때 누군가 내밀어 준 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품고 지금 내 곁의 낯선 얼굴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내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십니까?

5. 바울이 그치지 않은 감사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엡 1:16) 갇힌 자리에서 편지를 쓰던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곳간이나 성과가 아니라 사람, 곧 그들 안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결핍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결핍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 분의 현존이기에, 바울의 감사가 감옥 안에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이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비어 있다고 느끼는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달리 보이십니까?

6.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시 95:7) 밀레의 「만종」 속 두 농부는 추수의 한복판에서 감자 바구니를 세지 않고,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세라'도 '하라'도 아니라 '들으라' 하나뿐이며, 마지막 날은 우리의 오늘들을 합산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미 와 계셨던 분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 무언가를 세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이번 한 주간 — 하루 한 번 머물러 보기

하루 중 한 번, 저녁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전에 두 손을 무릎 위에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만종」의 두 농부처럼, 오늘 받은 것을 세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세기도 전에 나를 먼저 세고 계셨던 그 손을 떠올리며, 오늘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의 얼굴을 그분께 조용히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세시는 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손수 이끄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말씀구절 Bible Verse

이번주 본문 중에서 – 시편(Psalm) 95:7a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7]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and the sheep of his hand.

에베소서(Ephesians) 1:18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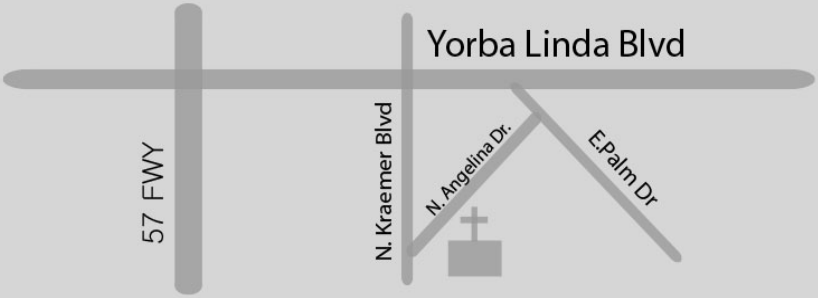
18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마태복음(Matthew) 25:40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0 And the King will answer them,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찾 아 오 시 는 길



교회소식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97 3213 9944,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추수감사주일: 이번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받은 감사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 대림절과 함께 시작되는 새해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으로 모입니다.

4.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5. 기도 제목: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도와 주소서. 내년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6. 섬김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13일
기도	황성만 목사	정해철 목사	윤치선 목사	황성만 목사
성경봉독	윤치선 집사	정용순 집사	김미정 집사	정해철 집사
식사	교회	정용순	황세나	유경자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교육관**	**주일 오후 1시**
모 임	**말씀의 여정**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목요 북클럽	**사무실**	**매주 목요일 오전 9:30**
	찬양모임	**친교실**	**마지막째주 주일 오후 3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